

마음까지... '통합 돌봄 체계'

익산시, 고독사 위험군 선제적 발굴... 민·관 협력 복지 서비스 연계

"혼자 추운 겨울 보내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익산에서 홀로 지내던 70대 어르신 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찾아온 손님을 반겼다.

익산시 맞춤형복지팀은 복지 시작지대 발굴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던 중 한 어르신을 만났다. 조사 대상 명단에는 없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와 함께 등록돼 있어 행정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대상자였다.

어르신은 혹시나 혼자 지내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주기적으로 찾아뵙기만 하겠다는 맞춤형 복지팀의 말에 차차 마음을 열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1인 취약계층 가구 증가와 혼자 거주하다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익산시는 이 같은 사회적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강화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한다.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통·이장, 마을 지킴이 등과 함께 전수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민·관 협력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적극 발굴해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인 고위험군 가구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로 AI 발벗·케어 로봇을 지원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대학교는 지난 18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2021학년도 전기학위 수여식'을 개최하고, 1794명에서 학위를 수여했다.

"마음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군산대학교, 전기학위수여식 개최

군산대학교는 지난 18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2021학년도 전기학위 수여식'을 개최하고, 1794명에서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다.

이날 학사 1640명, 석사 115명, 박사 33명 등 총 1794명에서 학위가 수여되었다.

군산대학교는 캠퍼스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참석 학위수여자 및 학부모를 위한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하였다.

김동익 총장 직무대리는 "지금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창의성을 개화시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말하며, "창의성을 마음껏 개화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정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영하며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참석 학위수여자 및 학부모를 위한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하였다.

김동익 총장 직무대리는 "지금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창의성을 개화시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말하며, "창의성을 마음껏 개화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정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권고안 적극 수용 검토 후 주민 전달 예정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 주민통합 대표 선출... 재건축·개발 방식 안 도출

익산 모현우남아파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민간에 의한 재건축·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도출했다.

시는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도출된 방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방식과 추진 방향이 담긴 권고안을 마련했다.

우선 아파트를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안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통합 대표 선출을 권고했다.

지난 2020년 추가로 시행한 구조안전

진단 결과에 일부 주민들이 불신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구조안전 진단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시 내부 인사이동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로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관련 사업계획승인 신청 처리기한 단축과 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모현우남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 주민을 포함한 통합대표 선출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월 건물의 기울기, 슬래브 처짐 등의 안전 점검을 지속하기

로 했다.

시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문에 대한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이를 모현우남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학계·전문가·인문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2019년 5월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개최, 공영 개발 검토, 정밀안전 점검 시행 및 소유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신속항원검사 선별진료소 8개단체 봉사자 현장 자원봉사

군산시는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자가 업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시여성자원봉사회, 군산시자율방재단 남빛봉사단, 디딤돌봉사단 세 노아봉사단, 시민경찰연합회, 희망의 숲 민주평통기자단 등 8개 단체 및 개인적으로 신청한 자원봉사자가 5인 1조를 이뤄 평일 오전과 오후반만 아니라 주말에도 신속항원검사가 진행 중인 군산 율령실내체육관에서 도움

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방역 현장에서 검사자 동선 안내, 질서 유지, 손소독제 사용 안내 등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황진 이사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텐데 봉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이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미접종자·체류 외국인 3차 접종 독려

군산시는 최근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며 백신 미접종자와 군산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3차 접종을 당부했다.

시는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업체(직업소개소 등), 관내 대학교 유학생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들에게 3차 접종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시행되는 '접종완료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등록외국인의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접종이 가능하며,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전화 예약 또는 접종기관 방문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다.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

서 해외 기본접종력을 등록하고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접종이 가능하다.

또 백신 미접종자들은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예방접종 콜센터(069-454-4950)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백신의 경우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백신 미접종자 및 외국인의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사회와 시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감염 시 누구나 중증 사망 위험이 있는 만큼 접종을 완료하면 오미크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미접종자와 3차 접종 대상자는 하루속히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 통

익산시, 개인정보 관리 2년 연속 '최우수'

익산시가 개인정보 관리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전국 79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대책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양호,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시는 부서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했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하는 등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전라북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도 3년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기관 '삼동회' 선정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선정됐다.

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기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동회는 향후 5년간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삼동회는 익산시와 협력해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 발달에 힘써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 조성 및 양질의 직업을 제공할 방침이다.

삼동회는 '장애인의 행복한 일터, 성장하는 일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터' 비전을 가지고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연면적 535.6㎡(177평) 규모에 세탁실, 건조실, 직업훈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세탁사업과 임가공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